

## 역사와 교회

History and Church

권 희 봉

### 들어가는 말

성서가 말하는 역사와 교회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존재론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행한다"는 행위론적 차원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위의 질문은 반드시 제기되어야 하며, 이런 질문에 대하여 이론적이고도 실천적인 답변이 요청된다.

자의식적 자기반성적 존재자로서 인간은 자기의 세계관을 지님으로써 여타 피조물과 구별적 존재임을 입증하려 한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이 결여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을 주체적으로 보완 또는 증시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을 가져야 한다. 실로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참다운 역사관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오늘의 현실적인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어떤가? 그리스도인이 역사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도 지니지 못하거나 혹은 역사와 자기를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와 교회의 관계에 대하여 무지한 상태로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이원론적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혹과 좌절에 빠지게 되며 나아가서 역사의 책임적 존재자로서의 사명을 행해내지 못하게 된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에도 관심을 지녀야 하고 소위 기독교의 전통적인 역사관에 정통해야 하되 특별히 성서에서 말하는 성서사관을 신뢰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런 맥락에서 역사의 흐름을 검토하고 결국 역사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전반(創造全般)임을 전제로 하여 이런 역사의 꽃은 교회라는 구조로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들어가는말>의 항목에서 역사의 의미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본논문의 목차진행에 무리를 덜 것 같아 우선 필자의 역사정의부터 언급하고자 한다.

흔히 역사는 사건이라고도 하며 혹은 사건과 그 기록의 합(合)이라고 한다. 이 말을 분석하면 사건화되지 않으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니, 가령 특정한 날에 특정인의 사망은 역사적 사건이 되는가 하면 동일한 날에 어떤 무명시민의 사망은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없다는 천편일률적 해석 같은 것이다. 예를 들어 10. 26사건에서 대통령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고 같은 날에 세상을 떠난 어떤 시민의 죽음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거나 역사자체도 아니라는 논리다. 그러나 그날에 죽음을 당한 시민의 유가족에게는 솔직히 대통령의 서거를 슬퍼할 겨를도 없이 대단한 역사적 죽음을 맞은 것이다.

또 위의 말을 분석하면 기록되지 아니하면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역사는 사건을 문헌으로 기록해서 남아있을 때에 역사적 자료이며 역

사적 내용이 된다는 것이니, 가령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후대에 문헌으로 기록되어 전수되지 않으면 역사적 가치를 잃거나와 반면에 비록 보잘 것 없는 어떤 풍속이나 관례라 하더라도 그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후대에 전달되면 대단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본다는 논리이다.

위의 역사 설명은 무엇을 누구에 의해 어떻게 규정된 것인지 모르겠, 소위 역사의 비중성(比重性)과 기록성(記錄性)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에 대한 전통적인 정의에 대하여 그것은 역사의 한 부분에 대한 설명에 불과하다고 재언한다. 그것은 마치 산꼭대기만을 산 전체라 하고서 산허리나 계곡이나 산 밑은 일체 산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나 역사는 산 전체이다. 즉 역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자체이다. 역사는 시공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존재일반에 대한 총칭이다. 물, 공기, 심지어 하늘에 떠도는 먼지까지도 역사의 형성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에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하나님이 역사라는 창조물을 내셨다. 단지 인간이 전체로서의 역사를 부스르기 역사로 쪼개놓고 있을 따름이다. 소위 원목을 쪼개어 자질구레한 그릇으로 만들었던 것이다.<sup>1)</sup>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인 역사 정의에 맹종하여 세속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또 세속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일시변통의 자선가 정도로 하락시켜 놓은 것이다.<sup>2)</sup>

회람의 순환론적 사관(Cyclical view of history)이나 현대의 실존주의 사관(Existential view of history)은 상층부에서 던져진 역사개념을 지니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상 비판론적이고도 무의미한 자포자기에 빠진다. 실존주의 사관의 예리성

(銳利性)도 역사의 이해가 상황에 응하는 범위 밖에는 더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이고도 편협한 역사관에 불과한 것이다. 빌하이머(Billheimer)는 이런 역사철학은 무지와 좌절과 그리고 절망의 철학이라고 했다.<sup>3)</sup>

그리스도인은 역사의식을 지니고 역사를 주체적으로 의식적으로 역사적 활동을 행하며 역사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인 교회와 역사의 관계를 명백히 밝히면서 그 관계유지에 주체적으로 가담하는 자이다. 교회를 떠난 역사는 방향을 잃은 역사이다.

## I. 비(非)기독교 역사관

비기독교역사관이란 성서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지않고 인간편에서 역사를 보는 시야를 말한다. 역사설명에 신적 위치를 기본으로 전제하기의 도적으로 배제하는 태도를 비기독교역사관이라 한다.

기독교사관을 언급할 때 비기독교사관을 다루는 것 자체가 기독교사관의 내용일부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사관에 대한 관심을 기독교인이 포기해야할 과제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수용해야할 과제이다. 그러기에 비기독교도의 역사 이해와 역사철학을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얼 카이언스<sup>4)</sup> (Earl E. Cairns)는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이 역사적 기록의 혼란으로서의 히스토리오그래피(Historiography)를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히스토리오그래피 자체로서는 비기독교사관이니 기독교사관이니 하는 등의 범주를 제한할 수 없다고 했다. 그 실례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Geschichte, Historia 그리고 Historikos 로 대별한뒤 6 l로 설명했다. 그것은 사건(Incident), 정보(Information), 탐구(Inquiry),

## 필자소개



권혁봉 교수는 관동대학 성문학과(문학석사, B.A.)와 침례회신학교(신학사, B.D.), 미국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신학석사, Th.M.)을 졸업하였으며 충남대학교 대학원(동양철학 전공, 문학석사), 필리핀 Asia Baptist Graduate Theological Seminary (신학박사, S.T.D.)에서 공부한 바 있다. 현재는 대전 침례신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세계구속의 여명>, <조직신학원론>, <유.불.도의 신관과 기독교 신관>, <노자철학에 있어서의 부정적 표현의 문제> 등의 역서 및 다수의 논문이 있다.

귀납(Inductions), 해석(Interpretation), 그리고 전달(Impartation)로 구성된다. 그의 역사정의는 다음과 같다 :

"그러한즉 역사는 인간에게 사회적으로 의미를 지닌 시공(時空)안에 나타난 인간의 사건과 정보(혹은 그 사건들의 기록들)와 탐구(혹은 그 기록에 대한 비판적 조사)와 자료로부터 나온 귀납과 그 자료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과 그리고 해석된 자료를 문자나 혹은 구두로 표현하는 전달을 매개로 해서 인식되어 질 수 있다."<sup>5)</sup>

엘 카이언스는 이상과 같은 역사정의 혹은 역사적 활동은 그리스도인 역사가나 공히 수납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궁극적인 초점에 와서는 다르다고 했다. 문제는 비기독교사관이란 성서의 관점을 떠난 역사의 안목이라는 데에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피할 때에 비기독교사관이 된다.

그럼 비기독교인의 대표적인 사관은 무엇인가?

### 1. 물질주의사관

물질주의사관의 대표적인 입장은 막스주의의 변증법적 유물사관이다. 역사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세력에 의해 결정되며,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최후 목표는 계급없는 사회에서의 물질적 상품의 생산분배이며 이런 경지에 이르면 정신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며, 이런 목표에 이르는 수단은 계급혁명이다. 역사의 중심은 물질이며 역사의 방향도 물질로서 물질이 신이 된다.<sup>6)</sup>

### 2. 정신주의 사관

정신주의 사관의 대표적 입장은 헤겔주의의 절대정신사관이다. 역사는 우주내에 활동하는 정신의 창조적 행위에 의해 결정되며,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최후의 목표는 이상적인 형태의 제도이며 이런 경지에 이르면 절대정신의 자기실현이 성취되었고 따라서 절대정신의 일부로서의 인간의 정신적 측면도 만족되며, 이런 목표에 이르는 수단은 특출한 인물이나 수단을 통한 절대정신 자체의 창조적 자기표현의 과정이다.

역사의 중심은 정신이며 역사의 방향도 정신으로서 정신이 신이 된다.<sup>7)</sup>

### 3. 문명주의사관

문명주의 사관의 대표적 입장은 아놀드 토인비

의 문명사관이다.<sup>8)</sup> 역사는 살아있는 유기체(Organism)의 성장과정에 의해 결정되며, 역사가 지향하고 있는 최후 목표는 부패와 재생의 순환론적 비판적 역사의 운명과 불가피하게 발전하고야 만다는 발전적 낙관적 역사의 전망등으로 양분되며, 이런 목표에 이르는 수단은 유기체인 역사의 성장을 돕는 문명자체이다.

역사의 중심이 문명이며 역사의 방향도 문명으로서 문명이 신이 된다.<sup>9)</sup>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이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을 관심있게 수용할 때에 기독교사관의 장을 펴는 데에 대단한 유리점이 있음을 제삼 인식하고서 저들의 사관을 도식적으로나마 지니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항에서는 비그리스도인이 역사를 해석하는 전통적인 세계의 모범을 제시했을 뿐 이 사관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기로 했는데 필자가 교회를 역사의 중심으로 보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졌기에 이를 소개한 것이다.

비그리스도인의 역사관 중에 흔히 무시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종교 사관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가 특유하게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이 있건만 역사철학에서 이를 중시하지 않고 있다. 본항에서도 이를 밀도있게 다루지 못하고 단지 신앙 혹은 신념에 의한 역사물이 개개 특정종교의 사관이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그치고 말겠지만, 앞으로 이런 종교사관을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이 기독교역사관과 정면충돌되는 처지가 여타 사관의 그것 보다 한층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 II. 반(半)기독교 역사관

반기독교역사관은 지금까지 이런 용어가 나타난 바 없는 생소한 것인데, 이를 부드럽게 표현한다면 전통적인 기독교역사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반(半)기독교역사관이라고 독창적인 조어(造語)를 사용하는 배경은 이 사관들이 절반은 긍정할 수 있는 성서적 지원을 받으나 나머지 절반은 그렇지 못한데 있다. 우리는 흔히 전통에 도전하거나 탈피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공포와 불안을 갖고 있는데, 고백적 신앙이 신학의 한 특성중의 특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에는 그런 공포와 불안정도쯤은 과감히 떨쳐버릴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반기독교역사관은 세속사와 구속사의 관계를 두고 거론될 수 있는 사관이다. 역사를 속된 역사와 거룩한 역사로 구분한다. 전자를 세속사(Secular history)로서 흔히 일반세계사라하고 후자

를 구속사(Salvation history or sacred history)로서 성경역사라 한다. 반기독교역사관은 이런 역사의 두계열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한 관계의 이해에 따라 세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 1. 분리사관

분리사관의 특징은 세속사와 구속사의 관계를 명백히 구별시키는 것이다. 분리사관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두 세계에 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야 할 필요성과 그럴 수 있다는 능력을 전제로 한다. 필요성과 능력이 세속사와 구속사의 분리의 당위성이다.<sup>10)</sup>

분리사관의 절반이 기독교역사관이 되는 것은 그 근거를 성경에서 찾고 있다는 데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다. 여기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구체적인 실례로 내세워서 경중(輕重)의 문제를 다루었다. 어느 한쪽에는 경을, 또 어느 한쪽에는 중을 두게 마련이라는 것이다.<sup>11)</sup>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는 "이세상이나 이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했다. 여기서는 애증(愛憎)의 문제를 다루었다. 어느 한쪽에는 애를, 다른 한쪽에는 증을 두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리주의의 성경적 근거가 가장 독특하게 나타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적대관계(敵對關係)를 다루었다.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 분리적인 입장이 강조되고 있다. 분리사관은 이상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성서구절에 의해 일단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세속사와 구속사의 분리를 지지하게 된다.

웨버는 분리사관<sup>12)</sup>의 모델을 콘스탄틴 이전의 교회와 재세례파 그리고 미국의 현대의 공동체운동으로 들고 있다.<sup>13)</sup> 그는 분리주의의 공통적인 주요특성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관심은 그가 자신의 삶을 사는 삶의 방식이다.
2.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상당히 다른 삶을 살아야만 한다.

3. 이 세상에서 분리된 이런 삶은 공동체 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이다.
4. 기독교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증이다.
5. 기독교 공동체 내의 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통제된다.<sup>14)</sup>

그럼 왜 분리사관을 반기독교사관이라 하는가? 그것은 분리사관의 전반부가 성경에 기초한다지만 그 후반부가 기본적인 성서정신에 미급하기 때문이다. 그 미급의 내용이란 분리사관의 기초가 되는 성경의 정신을 해석 및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성경의 교훈을 떠났다는 데에 있다. 차라리 분리가 보다 큰 안목에 비추어 볼 때 부분이며 과정이라고 못을 박았으면 좋을 것인데 그것 자체가 전부이며 목적이라고 하는데서 분리사관이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웨버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동시에 두 세계에 살아가는 것인데 과연 어떻게 이런 삶을 살 것인가를 질문한 뒤에, 분리주의자들의 대답은 오직 한 세계에서만 살고 또 다른 세계와는 관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요약제시했다.<sup>15)</sup>

이제 우리에게는 분리만이 지상목표일 수가 있는가? 분리에 대하여 "예"하면서도 동시에 곧 이어 "아니요"라는 태도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소위 연불연(然不然)의 법칙(Yes but no principle)이다. 그것은 분리는 더 진전된 통일을 위한 전제요 과정이기 때문이다.<sup>16)</sup>

### 2. 동일시(同一視)사관

동일시사관의 특징은 세속사와 구속사의 관계를 구별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별대립이 불편한 줄로 알아 양사관을 역설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일단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역사 속에 살아가면서 양면을 다 인정하고 이 양면이 모두 다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동일시사관의 절반이 역시 기독교사관이 될 수 있는 것은 분리사관이 그러하듯이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리차드 니이버의 <그리스도와 문화>에 나타나는 제이유형은 그리스도와 문화사이에 근본적인 일치가 있다는 것인데 동일시 사관이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sup>17)</sup> 웨버나 니이버가 한결같이 동일시사관의 성서적 근거를 제시한다.

애굽에 내려간 요셉이 애굽문화에 익숙했던 사

례(창 41:41-43), 바벨론에서의 다니엘의 위치(단6:1-3), 인자(人子)로 세상에 계셨던 예수의 모습(마11:19, 22:21), 하나님을 출처로 하는 모든 권세(롬13:1) 등이 동일시사관의 성서적 근거가 된다.

웨버는 동일시적 사관의 내용을 이렇게 말한다. "이런 성경적 모범들은 창조와 성육신, 그리고 구속이라는 신학적인 선(線)에 의해 더욱 실재화되며, 그리스도인들이 동시에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이해에 의해 확증된다. 창조교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선한 세상이며, 모두가 그에게 속했다고 가르친다. 또 성육신 교리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이 피조계에 내려오셔서 이 질서에 복종하셨음을 말한다. 그런가하면 구속교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 온 피조계를 담당하셨으므로, 온 피조계가 (잠재적으로는) 구속되었음을 보여준다..."<sup>18)</sup>

웨버는 동일시사관의 모델을 콘스탄티우스대의 교회, 루터교, 그리고 국가종교에서 찾는다.<sup>19)</sup> 그가 제시한 동일시사관의 주요특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하나님께서는 국가와 교회 모두를 통해 이 세상에서 역사하신다. 양자가 하나님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에 일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2.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의 헌신의 삶을 살아야만 한다.
3. 가장 큰 어려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이 세상 안에 있는 삶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는 가하는 문제이다. 양자의 요구의 상충성 때문에 성숙의 이분법을 함하게 되는 모순이 생긴다.<sup>20)</sup>

그럼 왜 동일시사관이 반(半)기독교사관이라는 평을 받는가? 그것은 이 사관의 전반부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만 역시 그 후반부 즉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경의 교훈에 미급하기 때문이다. 동일시사관의 결정적인 약점은 타락이전의 순수한 창조사관적 형편에 연민하는 전제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세속사에 빠져들어가는 위험을 언제나 간직하고 있기에 분리주의 사관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에 이른다. 따라서 이 사관에 대해서도 연불연(然不然)의 법칙이 적용된다.

### 3. 변혁사관

변혁사관의 특징은 분리사관의 구별대립도 아

니요 동일시사관의 역설적 조화도 아닌 낙관적인 변혁을 세속사와 구속사에 공히 적용하는 사관이다. 세속 및 하나님의 나라 양자 속에서의 변혁을 희망하고 있다.

변혁사관은 전술한 두개의 사관보다는 월등하게 호감을 받는 사관으로서 이 사관의 절반이 기독교적 역사가 될 수 있음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창조와 구속, 그리고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가르침이 성경기자들에 의해 나타났는데 이들이 언급한 성경이 변혁사관의 주요근거가 된다.

이스라엘의 종말론적 희망은 온 세계의 변혁을 명시한다. 새하늘과 새땅을 창조하신다(사65:17)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다(사65:25)."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와 단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싯딤 골짜기에 대리라(욥3:18).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피조계의 회복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사이에 언급되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서도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도 구속임을 말해준다. 이런 귀절들이 모든 것의 변혁을 갈구하는 사관의 기초이다.

종말론의 입장에서 모든 것의 변혁이 강조되고 있다(벧후3:12, 13, 제21:22).

웨버는 이런 변혁사관의 모델로 어거스틴과 칼빈을 예로들고 있다.<sup>21)</sup>

1. 변혁 모델의 핵심적인 확신은 삶의 구조가 개편되고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혁사관은 활동적이며 낙관적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까지 이 세상에서도 경험된다고 믿는 사관이다.
2. 변혁 모델은 죄의 치명적인 영향이 삶의 모든 구조에 스며들었음을 전제한다. 죄의 만연한 영향이 모든 삶에 들어있기에 전체적인 변혁이 요청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3. 따라서 변혁 모델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우주적 성격을 전제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미쳐서 개인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확대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 세상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의도대로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4. 변혁 모델은 그 안에서 구속적 실재가 형성되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교회를 바라본다.<sup>22)</sup> 변혁사관에 대해서도 그것이 반(半)기독교사관이라서, 연불연의 법칙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전반부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지만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성경의 교훈에 미흡함 때문이다. 구속의

목적이 창조에로의 회복이 아닌 창조를 떠난 전전된 새로운 것의 창조 즉 교회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언급된 세계의 사관을 반(半)기독교적이라고 평한 이유는 개개의 사관이 기독교사관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지 못한다는 범위의 문제성과 또 그 개개의 사관이 비기독교적 비성서적인 사관을 내포하고 있다는 성격의 문제성 때문이다.

그런고로 웨버는 이 세계의 사관의 종합이 어떠한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희망 아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바벨론은 부정(분리)의 국면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긍정(변혁)의 국면도 있다고 여겨 이 둘 사이의 긴장(동일시) 가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다고 했다.<sup>23)</sup>

그러나 웨버의 그런 아쉬운 종합이 개개의 사관을 독립시켰을 때 보다는 훨씬 더 그 범위와 성격이 부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완(未完)의 종합은 미완(未完)일 따름이다.

### III. 기독교 역사관

비기독교역사관과 반기독교역사관에서 참다운 기독교역사관을 찾아볼 수 없었던 불만을 안고 기독교역사관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그럼 기독교역사관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지닌 비기독교역사관 및 반기독교역사관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것이 성서에 입각한 신중심의 사관이라는 점에서 비기독교역사관과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부족하지만 비기독교적 역사를 내포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반기독교역사관과 차이가 있다.

#### 1. 기독교 역사관의 대전제

기독교역사관은 존재론적 신이 행위론적 신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사실을 대전제로 한다. 존재론적 신이란 소위 역사 이전의 신이니, 이 신은 아무것도 행위하지하지 아니한 행위 이전의 신이다. 존재론적 신은 단지 존재하실 뿐 행위 또는 계시하지 아니하신 신이다. 존재론적 신은 창조와 구속도 하시지 아니하신 채 단지 자존자로서 자존하신 신이시다. 존재론적 신은 우리에게 계시되어지신 신이 아니거니와 계시되어졌다 하더라도 그 신은 인식하는 주체자도 두지 아니한 신이다. 하나님의 창조행위 없이는 창조물을 포함하여 신을 인식할 인간 자신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존재론적 신은 우리 인간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 신은 시공을 만드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 신은 역사를 내어놓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위론적 신이란 존재하시던 신이 행위를 하셨다는 신이니, 곧 자기를 계시하신 신이시다. 이 신은 창조와 구속이란 두 개의 굵은 행위로 구성된 행위를 하셨다. 천지창조와 예수의 성육신이 존재론적 신의 행위론적 신에로의 자기계시 방법이다. 이제 우리가 인식대상으로 삼는 신은 행위 즉 계시해 주신 신일 따름이다.

기독교역사관은 존재하시던 신이 행위하신 신으로 나타나신 것을 대전제로 한다. 행위하신 신이란 역사를 만드신 신이시다. 신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신이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역사를 끝맺음 하실 것이다. 이 명제가 기독교 역사의 전제이자 내용이다. 결국 기독교역사관 신의 자기 이야기(His Story)이다.

이런 대전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로서는 1. 하나님이 계시했고, 2.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3. 인간은 타락했으며, 4. 하나님은 인간을 구속하셨다는 것이다.<sup>24)</sup> 요약해서 말한다면 기독교역사관은 신의 존재와 그의 계시행위에 기초한다.

#### 2. 창조사관과 구속사관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역사관을 크게 둘로 나눈다. 그것은 창조사관과 구속사관이다. 창조사관이란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원래 창조자체에 있었던 것이며 타락으로 인해 파괴된 창조를 회복하는 것으로 보는 사관이다. 하나님의 궁극적 섭리는 창조와 그것의 보존이었는데 창조가 파괴됨으로 인해 그것을 회복하자는 것이었다.

창조사관에 집착하는 사람은 창조이후의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창조의 복귀에 있다고 본다. 하나님은 창조의 파괴에 슬프셨고 창조의 회복에 기뻐하셨다. 창조사관도 신의 존재와 그 계시행위를 인정하며 진화론과 같은 비성서적인 견해를 일축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 또는 복귀에로의 향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창조사관은 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후 보시기에 좋더라는 그 창조가 그토록 조기에 망가지게 하셨냐에 대하여 영원한 회의를 품은 채 시원한 설명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돌리고 있다.

한국 이단종파중 문선명의 통일교가 이런 창조사관에 균형 감각을 잃은 채 몰두함으로써 복귀사상에 빠져 탐감회복론을 펴고 있다. 창조사관의 소유자가 이단의 위험에 있다는 말은 결코 아니

다. 문제는 창조사관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일직선적 전진보다는 노르만 가이슬러(Norman Geisler)가 주장한 대로 근원제로의 초월(Transcending toward the Beginning)에 사로 잡힌다.<sup>25)</sup>

그럼 구속사관이란 무엇인가? 구속사관은 창조사관의 근원제로의 초월이라는 방향을 보다 더 일직선적으로 미래 종말론적 양태로 이끌어 가는 사관이다. 이 사관은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은 구속(敍贖)이라는 것이니, 창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구속을 위한 하나의 시발점이며, 인간의 타락은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구속을 기대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구속사관에 집착하는 사람은 창조를 포함한 기타 모든 하나님의 활동이 구속에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은 창조물의 멸망에 슬프셨고 창조물의 구속에 기뻐셨다. 구속사관은 창조사관을 포용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말제로의 소망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현재적 구원의 체험을 강조케 한다.

구속사관은 창조사관의 영원한 수수께끼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기계시, 자기행위가 창조와 구속인데 구속사관은 특별히 후자에 비중을 두고서 예수의 성육신을 제2의 창조로 강조한다.

구속사관에는 새속사와 구속사의 구별이 무색해진다. 역사는 양분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하여 하나의 구속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속사관은 구속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한국 이단종파중 권신천무리의 구원파는 구속사관에 균형을 잃은 채 안주함으로써 마침내 예수 인격을 불신하고 예수가 이룩해 놓으신 구원원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 내지 구속받기를 심히 원하고 계시며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세상에 보내시사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주셨고 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놓은 이상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도 끝났고 인간의 할일도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 이상 거론할 어떤 인격적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결과는 도덕폐지론에 이른 것이다. 물론 구속사관 주장자들이 반드시 이단에 빠진다는 것은 아님은 말할 것도 없다.

필자가 이상에서 창조사관과 구속사관을 제시하면서 이단 종파의 실례를 부가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사관을 비판없이 수용해 온 데 대한 하나의 반성을 촉구하자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솔직히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창조와 회복이나 창조의 구속만을 역사의 목적으로 삼으셨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내어놓는 것이 교회 중심사관(Church centered view of history)

이다.

#### IV. 교회중심사관 - 역사의 꽃으로서 교회의 위치

교회중심사관은 역사의 목적은 시종일관 교회라는 것이다. 교회란 창조 이래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창조를 거쳐 구속의 체험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화이다. 역사는 구속받은 사람의 무리의 실재를 위해 존재한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창조사관에 대한 연민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역사를 바라보거나 구속사관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현재나 미래의 구원을 중시하면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을 전통적으로 일삼아 왔다. 역사의 궁극적 목적이 교회라고 할 때 일반적인 반응은 겨우 이렇게 불완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결말이란 말이나는 회의를 품는다. 대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실현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최종목표가 교회일 수는 없다는 전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즉 교회의 수단성을 인정하고 교회의 목적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으로는 교회의 기원의 문제와 교회의 목적성이 내포된다. 교회는 언제부터 있어 왔으며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제 본 논문의 최후적인 고지에 오른 것이니, 곧 역사와 교회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이르렀고,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기독교적 역사관과 반기독교역사관을 먼저 진술하게 된 것이었다.

##### 1. 교회에 관한 이해

교회중심사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에 관한 몇가지 주요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먼저 교회의 기원의 문제이다. 흔히 교회의 기원설로는 넓게는 신약에 두고 좁게는 오순절에 두고 있다. 침례교의 교회론은 신약교회론으로 유명하다. 클라이드 터너(J.Clyde Turner)의 신약교회 교리라는 단행본에서도 교회는 신약적 교회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sup>26)</sup>

그러나 교회의 탄생의 기원은 시공이전과 시공이후로 생각해야 한다. 다시말하면 교회는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었고 창조직후부터 역사속에서 발전했다는 것이다. 교회의 존재는 역사전후로 계속되었다. 교회의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교회를 두기로 창세전에 작정하셨을 때였고 그 때의 교회가 창조이래로 존재해 왔던 것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

리를 사랑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폴이 빌하이머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하여 교회, 오직 교회만이 역사설명의 열쇠이며 곧 역사설명이다. 피로 씻음을 받아 흠없는 교회가 하나님의 판대한 창조적 작품의 중심이고 이유이며 목표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오직 교회의 시녀(侍女)이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은 하나님에 의해 그의 교회의 목적을 위해 조정되고 있는 꼭두각시일 뿐이다(행17:26). 창조에 별다른 목적이 없다. 역사에 별다른 목적이 없다. 창세전부터 영원세대의 여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하나의 위대한 사건, 곧 하나의 우월적 목표를 향해 역사해 오고 계시는데, 그것이 곧 그의 아드님의 영광스러운 혼인예식인 어린 양의 Marriage Supper이다."<sup>27)</sup>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교회의 기원에 대해 창세전 기원설을 말한다.<sup>28)</sup> ... 본질적으로나 관념적으로 발단에 있어서 현저하게, 고대의 카톨릭교회는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로 예정해 놓으셨던 자들을 하나의 일치된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오리겐도 진정한 교회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주장한다. : 여러분은 교회가 구세주께서 육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부터 신부 또는 교회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교회는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그리고 천지창조에서부터 그렇게 불린 것입니다. - 실로, 만일 내가 바울의 가르침에 따라 최고의 신비의 근원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이 생기기 이전에서야 비로소 그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sup>29)</sup>

위트니스 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중심이다. 왜 교회가 하나님에게 그토록 귀하고 사랑할만하고 값진 것인가? 그것은 교회는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었기 때문이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교회를 가지시기를 계획하셨다.<sup>30)</sup>

하기는 클라이드 터너도 교회의 뿌리는 구약성경에 박고 있다고 하여 그가 신약적 교회의 실체를 증시했지만 뿌리를 구약으로 돌린 것은 결국 교회의 기원이 창세전 임을 시사하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심중에 이미 창세전부터 있어오다가 구약의 창조에서 씨앗이 뿌려져서 신

약의 구속에서 싹이 트고 종말에서 꽃을 맺는 하나의 거목(巨木)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의 거목을 박산죽위기(模散則爲器)로 토막토막 잘라놓는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아울러 역사는 교회라는 거목이 성장하는 장(場)인 것이다.

두번째로 교회에 대한 이해의 주요과제는 교회는 무엇을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인가 하는 것이다. 즉 교회의 수단성(手段性)과 목적성(目的性)의 문제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회의 존재의미가 있으며 이 수단성으로서의 교회의 기능으로는 대개 예배, 전도, 교육, 봉사 등을 들고 있다. 교회존재의 의미는 교회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외적 환경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교회의 수단성이다. 대개 사람들은 교회가 신국확장의 도구라는 도식에 거의 비판없이 맹종한다.<sup>31)</sup> 이런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이해부족에서 나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밀도있게 통하는 인격체이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여러 측면에서 상이하다. 전자는 비인격적인 통치라면 후자는 인격적 친교이다. 하나님은 돌이나 강물을 다스리시며 사탄 마귀 지옥까지도 다스린다는 것이 사실이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포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내용물이 다 포함된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통하며 밀도있게 스며들어가는 것이 최대의 다스림이 될 것인데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교회외에 이런 다스림이 있는가?<sup>32)</sup> 하나님은 추상적인 통치보다 구체적인 인격체에 더 관심이 높으셨다. 역사이전에도 통치는 있었으나 역사 이후에는 통치를 넘어서 하나의 인격체(one new man)가 있었다(엡2:15). 인격체인 인간자신이 먹고 자고 일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사명이며 그것 때문에 인간은 인간 외적 그 무엇(가령 노동, 사업, 학술, 오락 등)을 위한 수단적 존재라고 할 사람이 없진마는 인격체 교회의 수단성은 당연시 되고 있다.

교회의 목적성이란 교회가 수단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그 반대지론이다. 교회자체가 목적이며 교회외적 존재들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 있고 교회 때문에 있다(Everything is for the church and everything is because of the church).<sup>33)</sup> 이 항목은 교회중심사관의 내용을 다룰 때에 상론하기로 한다.

## 2. 교회중심사관

교회중심사관이란 역사의 시발 과정 종말이 모두 교회와 관련된 역사관을 이룬다. 교회중심



사판에는 종말사판, 통일사판, 그리고 차용사판으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1) 종말사판(終末史觀)

종말사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의 방향이 종말적이라는 사판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창1:1). 이것은 역사 즉 시공이 무에서 유(有)로 존재한 역사의 시작이다. 예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 하셨다. 이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께서 "세상끝날"을 말씀하심으로 종말을 확정하셨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와의 공존(共存)의 축복의 약속에 관심이 집중되었을 뿐 종말의 교훈에는 무관한 듯하다. 존 몬트고매리(John W. Montgomery)는 기독교의 역사 이해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절대주권적 창조와 구속주로서의 성자의 사랑어린 구속과 성결케 하시는 주로서의 성령의 거룩케 하시는 마지막 심판에서 역사는 종말을 향한다고 했다.<sup>34)</sup> 칼 뢰위스(Karl Lowith)는 기독교역사관을 "일직선적 그러나 중심적"(linear but centered)인 것으로서 순환론적 사건과 대립시켜 보았다.<sup>35)</sup>

종말론은 역사의 끝에 관한 이론이다. 원래는 마지막에 관한 이론인데 그 마지막은 역사의 마지막을 말한다. 창조와 구속을 통해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역사의 끝은 신랑되신 예수께서 창조 이래로 그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모든 무리인 하나의 새로운 사람인 인격체인 신부 교회를 만나는 일로 끝난다.

은 세대의 완성된 작품은 예수의 신부인 교회이다. 빌하이머는 이렇게 말한다: 역사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자 하면 끝, 최후산출, 순수한 결과를 보아야만 한다. 예언은 미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의 마지막 장을 본다. 종결의 지면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에 이 세대의 완성된 산존품은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은 오직 단 한가지 일일 뿐이다: 신인(God-man)이신 분의 영원한 동반자(Eternal Companion)이다.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의 온갖 사건의 최후적 궁극적 산출품, 즉 이 모든 세대의 완성된 작품은 흠없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니, 어린양의 혼인잔치에서 지극히 복된 혼인예식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여 우주의 보좌 위에 하늘에 속한 교회의 신랑과 좌정한다. 그리하여 그와 더불어 발전되고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한다. 그가 이 한가지 목적을 위해 인류역사의 강물에 들어오셨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지니기 위해서였다(계19:6,9, 21:7,9,10).<sup>36)</sup>

종말사판은 목적사판이다. 교회가 역사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의 수단성 위주가 아닌 교

회의 목적성 위주의 사판을 편다.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위해 있다는 논리도 결국 역으로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해 있다는 논리로 바뀌게 된다. 가령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정하신 기구라 하지만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로 형성된 교회구성을 위한 것이다. 결국 교회가 세상의 구원(기타 다른 측면으로 위해 줄 수 있는 항목도 있음)을 위해 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시키려는 목적은 교회가 있기 위함이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에는 비밀의 경륜은 교회였으며 같은 책 같은 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했다. 비밀스러운 교회는 모든 것을 교회중심으로 움직이게 하는 역사의 생동적인 핵심이다. 위트니스 리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다. 우리는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 안에 감취어져 왔던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해 있다.<sup>37)</sup>

그는 교회가 역사의 목표라는 것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를 들어 설명한다:

주 예수는 그가 시작하신 것을 잊으시는 일이 없다. 우리는 혹 잊지만 그는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신약의 첫 책(마16장)에서 교회의 건립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그가 시작하셨던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는 교회를 건립하시는 일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sup>38)</sup>

그는 우리의 선택, 구원, 중생도 천국(heaven)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church)를 위해서라고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지향대상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다.<sup>39)</sup>

그런즉 종말사판은 교회를 위한 역사이지 역사를 위한 교회는 아님을 주장한다. 교회는 역사의 꽃이다. 역사의 온갖 구성요소는 교회라는 하나의 꽃을 끝내 피우기 위해 존재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조직 신학의 종말론은 역사의 꽃인 교회가 하나님과 어떤 미팅(meeting)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 종말론이 개인의 문제를 논하는 개인종말론과 우주역사 전체의 장래문제를 논하는 우주종말론으로 양분되지만 개인으로 구성된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주가 된다. 그런즉 역사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보다"라는 어느 시구처럼 한송이 교회를 내기 위해 시작되었다가 종결되는 것이다.

## (2) 통일사관

교회중심사관의 통일사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의 내용이 통일적이라는 사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및 구속적 활동의 범위가 포괄적이며 확산적이라는 의미이다. 통일사관은 역사관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된다는 수평적 사관과 또 역사는 공간적으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는 수직적 사관으로 구성된다. 통일사관의 대표적 성경구절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이다(엡1:10, 참조 엡1:22,23).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롬11:36 참조, 딤후3:16). 에베소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곧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했다.

통일사관은 포괄적인 사관으로서 성숙(聖俗) 혹은 이분법적 사상을 지양하고 새로운 하나의 체제를 형성한다. 세속사와 구속사를 이분시켜 놓고 세속사와 구속사는 타협 불가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다른 한 쪽을 종속시킬 수 밖에 없으며 기독교는 세속사를 구속사에 종속시키는 역사인식을 지닌다고 한다.<sup>40)</sup> 그러나 세속사를 구속사에 종속시킨다는 것이 하나의 이상일지는 모르나 현실은 아니다. 기독교사관은 세상을 파산선고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롬3:19) 개선이나 보완을 추구하지 않는다. 파산선고 받은 은행과 거래한 사람은 더 이상 예금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데 까지 이미 예금했던 것까지 인출해서 새로운 은행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즉 기독교사관은 세속사와 구속사의 관계는 세속사로부터 모든 것을 빼내어 구속사를 형성하는 것이다. 예수의 성육신은 바로 하늘과 땅을 잇는 통일사관을 형성하셨다. 하나님의 보좌인 하늘과 하나님의 발동상인 땅은(마5:35)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창조행위 그리고 그의 구속행위로 말미암아 통일되고 연결된 것이다.

그런데 통일사관의 꽃은 무엇인가? 가장 통일이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것이 교회이다. 교회는 통일사의 현장이며 목표이다. 이에 대한 성경구절은 아래와 같다:

".....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하는 이 없도다"(딤후3:15,16)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세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

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엡3:10,11) 통일사관은 중황으로 그리고 수직 수평으로 하나님의 뜻이 관통되게 하는 사관이며 이 사관 속에 "이미와 아직이니"(already but not yet)가 포함된다.

## (3) 차용사관(借用史觀)

교회중심사관의 차용사관이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의 결과를 인간이 순전하게 신앙적 및 고백적으로 수납해야 한다는 사관을 이른다. 역사는 역사의 창조주에 의해 계획되고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에 대해 내리는 이해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펴시는 그의 이야기(His story about the history)를 우리가 빌어와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보시는 사관(史觀)을 우리가 받아들여 우리의 사관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역사관을 자기의 역사관으로 지닌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세상평가를 자기의 세상평가로 지닌 자이다. 하나님이 가실 때 가고 하나님이 서실 때 서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한다.

베드로가 예수를 똑바로 고백했고 이어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장면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했다(마16:1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환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마11:27).

이상과 같이 차용사관은 역사의 이해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역사를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우리 지력의 향상의 결과가 아니라 돌변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차용사관은 여타 세속적 사관의 상대성을 그리고 교회중심의 사관의 절대성을 제시한다. 차용사관은 신앙사관이며 고백적사관이다. 그리스도인은 "내 뜻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되풀이 한다.

## 맺는 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종결지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그것이 마치 인간의 통제하에 들어있거나 한 것처럼 역사를 운위해 왔다. 그렇게 운위해 온 내용이 비기독교역사관이었고 반기독교역사관이었으며 또 전통적으로 수용해 왔던 기독교 역사관이었다. 차제에 그리스도인은 잡다한 사관(史觀)으로부터 자유함을 지녀야 한다. 역사에 대한 규범적 진술로부터 해방을 체험해야 한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성서적사관을 수립할 때가 되었다. 그것이 교회중심사관이다. 역사를 시작해서 역사를 종결짓기까지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 친교의 대상인 교회를 심중(心中)에 두셨다가 역사속에 출

현시켰으며 초역사속에 영존(永存)케 하신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부득불 불편한 관계이다. 피차간의 불편한 관계가 긴장관계로 번질 때 이미 고지를 차지한 교회는 역사속에서 역사를 주체적으로 인도하고 나가야 할 것이다. 교회중심사관이 염세주의나 도피주의는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에 영적인 문제를 제시해서 다각도로 유익을 끼쳐준다는 철학과 실천을 지닌 사관이기 때문에 이 사관에 대해 터무니 없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

교회중심사관은 긍정적, 건설적 그리고 낙관적 사관이다. 교회는 역사의 핵이요 중추이고 역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 1) 노자, 도덕경. 이십팔장, <模散則爲器>
- 2) Hendrikus Berkhof. The Christ, The Meaning of History, trans. L. Buurman. (Richmond, Va: John Knox Press, 1966) p.15
- 3) Paul E. Billheimer, Destined For the throne (Minneapolis, Minnesota: Bethany House Publishers, 1975) p.20
- 4) 얼 카이언스는 1943년부터 1977년까지 미국 Wheaton College의 역사교수였다.
- 5) Earle E. Cairns, God and man in Time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79) pp.20-23
- 6) Merle William Boyer, Highways of Philosophy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49) p.140
- 7) Merle William Boyer, Highways of Philosophy (Philadelphia: Muhlenberg Press, 1949) p.141
- 8) 이 견해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비판론적 순환론적 문명사관의 대표자로서는 Oswald Spengler를 들 수 있고 낙관론적 대표자로서는 Vico, Herder, Herbert Spencer 등이 있다.
- 9) Merle, William Boyer, 위의 책 p.143  
침례교의 종교철학자 John P. Newport도 Boyer의 입장을 그의 종교철학개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 10) 로버트 E. 웨버. 기독교문화관, 이승구 역. (서울: 엠마오, 1984) p.77

- 11) 월취만 니 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권혁봉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건전한 의미로 세상과 교회의 분리를 날카롭게 설명하고 있다.
- 12) 사실 웨버는 기독교와 문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 설명을 사관으로 해석해서 무리가 없다.
- 13)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p.79-109
- 14)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108
- 15)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111
- 16) 침례교와의 혈연적 생명적 관계를 지닌 재침례파의 분리주의는 그들의 왕국관 내지 교회관에서 특출하게 돋보이고 있다. 로마카톨릭과 개신교의 주류도 재침례파의 공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최근에 와서는 내리고 있다. 웨버의 본논문 인용서적에 나타난 재침례파에 대한 설명은 매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재침례교의 분리주의에 Yes but no Principle을 적용하는 것은 필자 자신의 교회사관의 강조 때문임을 밝혀둔다.
- 17) 리차트 니이버 "그리스도와 문화" 김재준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pp.48-49
- 18)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113
- 19)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p.114-142
- 20)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143
- 21)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p.149-167
- 22)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p.167-168
- 23) 로버트 E. 웨버, 위의 책 p.205
- 24) 이석우 교수는 목회와 신학(1989, 7월 창간호)

p.214에서 기독교 역사인식의 세가지 확신으로 첫째, 하나님이 역사에 간섭하신다는 주장과 둘째, 역사를 일직선으로 이끌어 간다는 믿음과 셋째, 하나님이 계획했던 의도대로 역사의 종결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했다.

25) Norman Geisler, *Philosophy of Religion* (Michigan: Zondervan, 1974) p.43

26) J. Clyde Turner, *신약교회 교리*, 이요한 역, (서울:침례출판사,1961)

27) Paul E. Billheimer, *위의책* p.26

28) E.G. 제이, *교회론의 역사*, 주재용 역(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1976), p.76

29) E.G. 제이, *위의 책* p.76

30) Witness, Lee, "The Practical Expression of the Church (LA: The Stream Publishers,1970) pp7-8

31) 세계교회협의회회편, *세계를 위한 교회*, 박근원 역.본서는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교회의 수단성을 강조하고 있다. 원명은 The Church for others and the Church for the World로 되어 있다.

32) 한스 쾨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홍근 역에서 필자와 정면적인 대결사상이 나온다. 그는

에클레시아와 바실레이아에 대하여 필자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생각을 지닌다. "신약성서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말하는 바를 교회에 적용한다면 부당한 교회찬양론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은 교회를 목적으로 삼는 이론이다. ..." 한스 쾨은 에클레시아(교회)의 잠정성과 바실레이아(왕국)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다. 그는 창조의 목표는 교회가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다(동서.p.95).

33) Witness, Lee, *위의 책* pp.7-8

34) John.W.Montgomery, *Where is History going* (Minneapolis Minnesota: Bethany Fellowship, INC,1972)p.32

35) John.W.Montgomery, *위의 책* p.32

36) Paul E.Billheimer, *위의 책* pp.25-26

37) Witness.Lee, *위의책* p.10

38) Witness.Lee, *위의책* p.12

39) Witness.Lee, *위의 책* p.11

40)이석우, "크리스찬의 역사의식" 목회와 신학 1989.7월호,p.214